

관계부처 합동 「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」 개최

- ▲ ‘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+18.8조원 증가(+1.0%)하여
 ①과거 평균*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②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**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
 - * ‘23년 증가분 : 18.8조원 < ‘13~’22년 연평균 : +90조원 내외, +6.8%
 - ** ‘21년 105.4% → ‘22년 104.5% → ‘23년^P 100.8%
- ▲ ‘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‘경상성장을 內’에서 철저하게 관리
 - ① 소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
 - 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(주택금융협의회)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
 - ③ 가계부채의 양적·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일관되게 추진
- ▲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
 - ① ‘지속가능한 성장’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
 - ②불필요한 외형경쟁 지양, ③상환능력 내 대출원칙 일선현장에서 확립

‘24.2.20일(화) 금융위원회(김소영 부위원장 주재)는 국토교통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은행연합회,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「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이날 회의에서는 ▲‘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, ▲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, ▲가계부채 정책제언,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·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이날 발표된 ‘23년 가계신용(한은) 증가폭은 +18.8조원으로(전년대비 +1.0% 증가) 과거 10년간(‘13~’22년)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+90조원 내외(동기간 평균 증가율 +6.8%)임을 고려해볼 때, 예년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.

- * ‘23년 가계신용 증가율 : +1.0% < 과거 10년 평균 증가율 : +6.8%
- * ‘23년 가계신용 증가폭 : +18.8조원 < 과거 10년 평균 증가폭 : +90.4조원
- * 최근 가계신용 추이(조원) : (‘21)1,862.9 → (‘22)1,867.6 → (‘23)1,886.4

참석자들은 ‘23년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’24년 들어서는 ▲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, ▲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,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.

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“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+1.0%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”이라 진단 하면서, “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,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

특히, “‘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‘경상성장률’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▲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, ▲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,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첫째, **全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한다.**

▲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·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▲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.

둘째, **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한다.** 서민·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, ‘주택 금융협의체’를 주기적으로 운용하여, 서민·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셋째, **가계부채의 양적·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.**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, ▲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, ▲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김소영 부위원장은 “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, ▲단기적으로는 서민·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, ▲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언급하며, “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,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“금융권에서도, ▲‘지속가능한 성장’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, ▲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 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, ▲‘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<별첨 : 부위원장 모두말씀>

담당부서 (총괄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임형준 (02-2100-1690)
			사무관	송병민 (02-2100-1692)
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정태현 (044-201-3340)
	한국은행 안정총괄팀	책임자	팀 장	임광규 (02-750-6834)
		담당자	과 장	배상인 (02-750-6851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	책임자	팀 장	안신원 (02-3145-8040)
		담당자	선 임	백민지 (02-3145-8043)
	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	책임자	부 장	이영태 (051-663-8271)
		담당자	팀 장	류기현 (051-663-8272)
	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	책임자	부 장	황영미 (051-998-2240)
		담당자	팀 장	조원재 (051-998-2241)
	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	책임자	부 장	박영상 (02-3705-5704)
		담당자	팀 장	이열강 (02-3705-5237)